2023년 3월 19일
금문교회 사순절 제4주일예배 Lent the 4th Sunday Worship Service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이사야 Isaiah 26:16-19
O Lord, in distress they sought you;
they poured out a whispered prayer
when your discipline was upon them.
17 Like a pregnant woman
who writhes and cries out in her pangs
when she is near to giving birth,
so were we because of you, O Lord;
18 we were pregnant, we writhed,
but we have given birth to wind.
We have accomplished no deliverance in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have not fallen.
19 Your dead shall live; their bodies shall rise.
You who dwell in the dust, awake and sing for joy!
For your dew is a dew of light,
and the earth will give birth to the dead.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네 번째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40일 중에 벌써 22일을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열여덟 날도 거룩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두운 일들도 결국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더욱 더 가까운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어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모든 고난 중에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행한 줄 압니다. 아버지여, 모든 일 중에 먼저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로써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복된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사 십자가의 보혈로써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를 기억하리라 In Memory of Her

마태복음 26:6-13; 마가복음 14:3-9; 요한복음 12:1-8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Now when Jesus was at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a woman came up to him with an alabaster flask of very expensive ointment,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able.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were indignant, saying, "Why this waste?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For this could have been sold for a large sum and given to the poor."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But Jesus, aware of this, said to them, "Why do you trouble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In pouring this ointment on my body, she has done it to prepare me for burial.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마태복음 26:6-13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And while he was at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a] as he was reclining at table,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flask of ointment of pure nard, very costly, and she broke the flask and poured it over his head.
4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There were some who said to themselves indignantly, "Why was the ointment wasted like that?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For this ointmen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three hundred denarii[b] and given to the poor." And they scolded her.
6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But Jesus said, "Leave her alone. Why do you trouble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7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and whenever you want, you can do good for them.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8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She has done what she could; she has anointed my body beforehand for burial.
9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And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be told in memory of her."
마가복음 14:3-9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therefore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was, whom Jesus had raised from the dead.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So they gave a dinner for him there. Martha served, and Lazarus was one of those reclining with him at table.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Mary therefore took a pound[a] of expensive ointment made from pure nard,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But Judas Iscariot, one of his disciples (he who was about to betray him), said,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Why was this ointment not sold for three hundred denarii[b] and given to the poor?"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He said this, not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and having charge of the moneybag he used to help himself to what was put into it.
7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Jesus said, "Leave her alone, so that she may keep it[c] for the day of my burial.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For the poor you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do not always have me."
요한복음 12:1-8

어떤 사람이 기억되어야 한다면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를 기억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본문을 삼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향유헌신"을 주제로 설교합니다.

베다니(Bethany)에서 장사가 준비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넘어 기드론 골짜기 앞,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베다니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한 여인의 헌신이 매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베다니 사건과 이 여인의 헌신(dedication)이 기억될 것입니다. 이 기억 명령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에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은 베다니(Bethany)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Lazarus)를 살리신 마을입니다. 주로 나병환자들이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복음(Luke)의 경우는 그 사건이 생략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장사와 관계가 없이, 큰 죄 사함 받은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은 끝내 우리가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들 세 복음서에 나타난 이 여인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마리아(Maria)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실망했습니다. 나흘이나 늦게 오신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 Now when Mary came to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fell at his feet, saying to him, “Lord, if you have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 요한복음 John 11:32

그러나 마리아는 끝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25-26

분명히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린 “헌신”을 드린 것으로 되짚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 행동은 “믿음의 헌신”이었습니다.

이 헌신을 “오해”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신을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온전히 갖추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깨달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헌신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 중 누가 헌신한다고 해도, 결국 모든 귀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고 부족한 믿음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합니다: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Now when Jesus was at Bethany in the house of Simon the leper.

나사로를 살리신 일 이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식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사로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a woman came up to him with an alabaster flask of very expensive ointment, and she poured it on his head as he reclined at table.

한 여자. 요한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리아가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양유를 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종합하면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이 여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그 행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이미 마리아의 이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특히 기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그 여인의 “행위”를 기억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경우 “누가” 했는지, 그것은 때로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높여서 무얼 얻겠습니까? 다만 어떤 “믿음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이 “마리아”를 언급한 것은,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바로 앞 요한복음 11장에 마리아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는 여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교회역사 2천년 중에 우리가 이름으로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또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For by it the people of old received their commendation.
> 히브리서 Hebrews 11:1-2

>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 let us also lay aside every weight, and sin which clings so closely,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 히브리서 Hebrews 12:1

오늘 우리도 이름을 남기지 않고 피와 땀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로 족합니다. 혹시 이름이 남는다면, 그 이름의 위대함이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이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달리 없습니다. 이름이 남겨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 For the sake of Christ, then, I am content with weaknesses, insults, hardships, persecutions, and calamities.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2:10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And when the disciples saw it, they were indignant, saying, “Why this waste?

제자들이 분개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Why this waste?
마태복음 Matthew 26:8b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허비" 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행동을 가치가 없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모든 행동은 다 죄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For whatever does not proceed from faith is sin.
로마서 Romans 15:23b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For this could have been sold for a large sum and given to the poor."

"비싼 값에 팔아." 이 말은 저 비싼 향유가 지금 헐값에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핑계" 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라면 그들은 벌써부터 가난한 자들을 위해 헌신했을 것입니다.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But Jesus, aware of this, said to them, "Why do you trouble the woman?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예수님께서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Why do you trouble the woman?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진 그런 종류의 믿음이 없다면 그 여자를 결코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Fo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마태복음 Matthew 26:10c

어떤 좋은 일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히브리서 Hebrews 11:6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 이거나, 혹은 제자들, 혹은 가룟유다보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신" 한 것입니다. 비록 그 믿음이 "완전한 것" 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완전한 믿음을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For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보십시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 세상 끝 날까지 있을 것입니다.

>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 For there will never cease to be poor in the land.
> 신명기 Deuteronomy 15:11a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하여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시는 분이시며,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In pouring this ointment on my body, she has done it to prepare me for burial.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깨닫고 감사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어떤 여인의 경우,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 행위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사건이 자기 자신은 물론 온 인류에게 미칠 "부활의 능력"의 "징표"가 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만한 충분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Truly, I say to you, wherever this gospel is proclaimed in the whol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실 때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진실로"는 "아멘" 하심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보십시오. 지금 온 세상 어디서든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야기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일"로써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떤 어린아이의 "헌신"을 기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아이는 오병이오로써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실 것을 믿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믿음"을 가집니다. 마리아에게 이 작은 믿음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보십시오.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믿음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나무에게는 열매입니다. 사람에게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가도 그가 한 일이 남습니다. 행위 중에 행위는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믿음, 부활 믿음을 굳게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것은 "헌신" 입니다. 다 드리고 하나도 남기지 않는 헌신입니다.

결론입니다. To conclude: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들을 건너는 발걸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사순절에 묵상할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마리아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일과 관계가 깊을 것입니다. 그 일로 부활과 생명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로써 마땅히 준비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예수님 장사를 위한 어떤 준비였을까요? 믿음준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물은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29b)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참 뜻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분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8). 이런 생사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 장사의 준비입니다. 그 믿음이 향유입니다.

우리 몸 옥합을 깨뜨려 그 믿음이 나와야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면 오늘 우리는 몸을 깨뜨려야 합니다.

>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 You shall be holy. For I the Lord your God am holy.
> 레위기 Leviticus 19:2

거룩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거룩하면 정말 작은 것도 큰 헌신이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늦게 오셨다고 예수님께 불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심으로써 그 여자에게 "부활신앙" 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023년 사순절에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의 보혈로써. 아멘. 이보다 더 귀한 일이 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기억하게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옥합을 깨뜨려 참된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